

## 《전주와 가차의 상보적 기능에 대한 연구》

### - 중국어 언어 표현력과 문자 체계 안정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서 원 남

(한양대학교 교수)

####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자의 육서(六書) 가운데 가장 해석이 복잡하고 언어학적 기능이 유연한 轉注(전주)와 假借(가차)에 주목하여, 이 두 조자 방식이 중국어의 어휘 체계와 문자 구조의 발전에 어떻게 상호보완적 기여를 해왔는지 고찰한다. 전주는 중심 자형의 의미를 분화하거나 병렬화하는 방식으로 어휘의 정밀화와 계열화를 실현하며, 유의어 확장, 감정·사교 표현의 심화에 관여한다. 반면, 가차는 발음이 같은 기존 자형을 차용함으로써 새로운 기능어 및 추상어의 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문자 수의 폭발적 증가를 억제함으로써 문자 체계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한다.

본 연구는 이 두 원리가 이음절어 형성과 문법 구조 정립 과정에서 어떻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했는지 문헌 분석을 통해 논증하였으며, 고대 문헌에 나타난 대표 사례들과 현대 중국어 어휘 구조의 변화를 통해 그 통시적 연속성을 입증하였다. 특히 가차의 다의성으로 인한 의미 충돌을 후기자(後起字) 생성이라는 방식으로 보완한 구조는 문자 체계 내부의 자가 조절 메커니즘으로서의 언어적 완결성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전주와 가차는 단순한 조자 원리를 넘어서 중국어의 표현력 고도화, 어휘망 구축, 문법화 과정, 문자 질서의 정합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핵심적인 언어사적 동력으로 기능하였으며, 현대 중국어 교육, 사전학, 정보 처리 분야에서도 실용적 응용 가능성을 지닌다.

주제어 : 전주(轉注), 가차(假借), 육서, 이음절어, 한자, 중국어 어휘사

## 1. 서론

한자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자적인 표의문자 체계로, 수천 년에 걸쳐 자음과 자의, 자형의 삼자 일체 구조를 유지하며 발전해 왔다. 이 문자 체계의 조자 원리를 설명하는 육서(六書) 이론 가운데 전주(轉注)와 가차(假借)는 그 정의와 적용 방식이 비교적 불명확하거나 추상적이라는 이유로 현대까지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방식은 단순한 조자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중국어 언어 체계와 문자 체계의 근본적인 구조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해온 핵심 원리라 할 수 있다.

전주는 의미가 통하는 글자 간의 의미 전이와 확장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생성하고 어휘망을 정교하게 형성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단어 간 미세한 의미 차이를 구분하고 유의어를 정교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결국 중국어의 언어 표현력을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반면 가차는 발음이 같은 기존 글자를 빌려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한정된 자형 자원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면서도 의미를 넓히고 추상 개념과 문법 기능어를 표현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가차는 무분별한 문자 창조를 억제하고 후기자(後起字)의 생성을 통해 자형과 의미를 분화·정착시키는 방향으로 문자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전주와 가차는 각각 의미 확장과 음의 차용이라는 상이한 메커니즘을 통해 한자가 언어로서 문자로서의 기능을 확장하면서 서로 상보적(complementary) 관계를 이루어왔다. 따라서 양자의 관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넘어서 이 두 원리가 중국어의 표현 체계와 문자 구조에 어떻게 유기적으로 기여했는지 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전주와 가차에 대한 고전적 정의는 허신(許慎)의 『설문해자(說文解字)』에 근거하며, 이후 단옥재(段玉裁)의 『說文解字注』를 통해 보완되었다. 현대 문자학에서는 이들을 각각 의미 연계 조자 방식과 음 차용에 의한 표현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가차는 고대 중국어 음운 연구의 핵심 단서로서 많은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는 조자 방식 자체의 정의나 유형 분류에 머무르고 있으며, 이들이 중국어 어휘 구조에 미친 영향, 특히 이음절어 형성, 기능어 정착, 표현력 확대와 문자 수 절제의 상보적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그 논의가 미비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전주와 가차의 언어적 기능을 표현력 강화와 체계 안정성이라는 대립적이면서 상호 보완적인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표를 설정한다. 첫째, 전주가 의미가 통하는 자형 간의 전이 및 파생을 통해 어떻게 다양한 의미군을 생성하고 표현력을 확장시켰는지 분석하고, 문헌에 나타나는 대표적 어휘 사례를 통해 그 작용양상을 고찰한다. 둘째, 가차가 동음 글자의 차용을 통해 기존 자형을 재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상 개념과 문법 기능어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작용함으로써 문자 수의 무분별한 증가를 억제하고 체계적 안정성을 유지한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셋째, 전주와 가차가 어휘 의미의 세분화와 이음절어 형성, 의미망의 구축과 기능어 정착, 자형 통제와 자원 효율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휘 체계와 문자 체계 전반에 걸쳐 어떻게 상호 유기적으로 작용하였는지를 통합적으로 해명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詩經』, 『論語』, 『史記』 등 고전 문헌에서의 실제 어휘 용례 분석을 통해 어휘 형성의 실제 경로를 확인한다. 또한 현대 의미망 이론, 형태소적 분석, 기능어 발전론 등의 이론 틀을 참조하여 언어학적 분석과 구조적 비교를 병행함으로써, 조자 원리와 언어 표현력 간의 내재적 연관성을 보다 입체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 II. 轉注의 의미 확장 방식과 언어 표현력 고도화

### 1. 중심 개념의 파생을 통한 의미 분화 유형

육종달(1981:56-57)은 “전주의 대표적 기능 가운데 하나는 중심 개념 (semantic core)에서 다수의 관련 의미를 분화시켜 새로운 어휘로 확장 하는 방식이다”라고 주장하였다<sup>1)</sup>. 이 방식은 하나의 자형이나 어근을 중심으로 의미가 가지를 치듯 뻗어나가며 언어 표현의 정밀도와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의미 분화는 동일 계열의 자형군 내에서 발생하며 표면적으로는 새로운 자형이 아니더라도 표현 층위의 세분화라는 중요한 언어학적 기능을 수행한다. 의미 분화형 전주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작용한다.

- ① 사회적 역할의 분화 - 중심 의미가 사회적 기능에 따라 세분됨(父 (기본적인 가부장 개념) → 형제 순위의 사회적 역할 구분으로 伯 · 仲 · 叔 · 季의 의미 분화)
- ② 심리적 상태의 분화 - 중심 개념이 인간의 내면적 심리 상태에 따라 세분화 되어 다양한 어휘로 발전하는 과정(愛 → 慕 / 敬 → 佩)
- ③ 추상 개념의 분화 - 중심 개념이 이념 · 철학 · 논리적 범주로 확장되며 관계화 됨(道 → 道德, 道理)

이러한 분화는 언어 사용자로 하여금 보다 정확하고 적절한 단어 선택을 가능하게 하며 단어 사이의 미세한 의미망 구축을 촉진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

1) 陆宗達의 전주 개념은 중국어의 어휘학 개념으로까지 확대 가능하게 만들었다.

### (1) 老 → 考

‘老’는 인간의 생애 주기 중 말기를 나타내는 자형으로, 허신은 『說文解字』에서 “老, 考也. 從耂從匕, 匕亦聲. (老는 考(노인)와 같다. 자형은 耂와 匕로 구성되며 匕는 또한 聲符이다)”라고 풀이하였다. 老에서 파생된 ‘考’는 『說文解字』에서 “考, 老也. 從老, 從丂.”라고 풀이하였는데, 여기서 ‘考’는 단순히 ‘늙다’는 생리적 상태를 넘어, ‘先考’, ‘考妣’ 등 주로 죽은 아버지를 높여 부를 때 쓰이는 말로 발전하였다<sup>2)</sup>. 이는 노인이라는 중심 개념이 가족 제례에서의 역할(조상, 부친)이라는 사회적 기능에 따라 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sup>3)</sup> 즉 나이 많은 사람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조상의 지위, 제례의 대상으로 의미가 세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師’ 또한 스승이라는 중심 의미에서 출발하여 가르치는 사람(教師), 전략가(軍師), 법률가(律師) 등으로 사회적 직능을 반영하여 분화되었다.

### (2) 思 → 想

‘思’는 ‘생각하다’라는 기본적 사고 작용을 나타내며, 『說文解字』에서는 “思, 容也. 從心從囟. (생각함을 뜻한다. 마음(心)과 머리(囟)의 의미소로 구성되었다)”라고 풀이하였다. 이후 ‘想’은 ‘思’에 ‘相’이 결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단순한 사고에서 한 걸음 나아가 상상·기억·소망 등 방향성과 정서를 가진 사고 행위로 의미가 확장된다. 예를 들면 想像, 想念, 想要 등의 어휘는 그 의미가 사고의 범주 내에서 기능과

---

2) 이에 대하여 段玉裁의 경우 『說文解字注』에서 늙음을 본의, 후에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로 바뀌었는데, 이는 제사 의례 제도의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충 설명하였다.

3) 왕력은 좀 더 구체적으로 『漢語史稿』에서 일부 단어의 파생은 사회적 분업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노(老), 고(考), 군(君), 재(宰) 등의 글자를 본의가 직책에 따라 분화된 사례라고 설명하였다.

감정에 따른 의미 분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전주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 (3) 道 → 道德 / 道理 / 修道

‘道’는 본래 ‘길’이나 ‘행로’를 뜻하는 단어로, 『說文解字』에서는 “道, 所行道也. 從辵從首”라 하여, ‘가는 길’, ‘지나가는 방향’을 의미하며, 자형은 ‘辵(걷다)’와 ‘首(머리)’로 구성되어 ‘앞장서 가는 길’이라는 뜻을 내포한다. 이는 물리적 공간의 이동뿐 아니라, 인간이 따르는 이치나 규범으로의 확장을 포함하는 상징성을 띤다. 전주적 의미 확장을 거치면서 ‘道’는 구체적 경로나 방식의 개념을 넘어서 윤리·논리·철학의 추상적 영역으로 의미가 분화되었다. 예를 들어 道德, 道理, 修道와 같은 어휘들은 모두 ‘道’라는 공통 어근에서 파생되었지만, 그 각각이 지향하는 바는 윤리, 논리, 실천적 삶이라는 뚜렷한 기능적 방향성으로 나뉜다. 또한 단순한 의미의 병렬적 확장이 아니라 위계와 관계성을 지닌 개념군으로 구조화 된 전주적 의미 분화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주의 의미 분화는 동일 어근군(語根群) 내에서 수직적 의미 확장을 가능케 하며 어휘 선택의 뉘앙스 조절, 문체의 정교화, 표현의 문법화 등 다양한 언어적 기능을 수행한다(莊斐喬, 黃侃 2006: 209-213).

## 2. 전주에 의한 병렬 확장과 의미 강조

전주의 작용 방식 가운데 하나는 의미가 유사한 두 글자 또는 자소를 결합하여 이음절어를 형성하는 병렬적 확장(parallel expansion)이다. 이 숙평(2007:197-216)에서는 “이 방식은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 간의 병렬적 배열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거나 강도와 범위를 확장하는 데 사용된다”고 주장하였는데, 본고 에서도 그의 주장을 따르고 있다. 이러한 병렬형 전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 ① 의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형을 병치하여 의미 강조 또는 심화
- ② 병렬 결합을 통해 추상적 감정, 판단, 상태의 정밀화 실현
- ③ 단음절 중심 어휘에서 이음절어 중심 체계로의 발전 가속화

이러한 방식은 한자의 경제성과 표현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주 원리의 응용적 확장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아래의 병렬적 확장의 전주 사례를 살펴보자.

### (1) 疾病 (jíbìng) : ‘병’을 표현하는 유의어 병렬

‘疾’과 ‘病’은 모두 ‘질병’ 또는 ‘질환’이라는 의미를 지니지만, 세부적으로는 뉘앙스에 차이가 있다. 『說文解字』에서는 “疾, 病也. 從疒, 從矢, 矢疾也. (疾은 병이다. ‘疒’과 ‘화살(矢)’을 구성 요소로 하며, 화살처럼 빠르게 오는 병이다)”라고 풀이하였다. ‘病’은 보다 일반적이며 지속적 질환을 의미하는 용어로, 『說文解字』에서 “病, 疾也. 從疒, 從丙, 丙聲.”이라고 풀이하였다. 이 두 글자는 본래 서로 다른 강조점을 지니지만, 병렬적으로 결합되면서 질병의 강도와 일반성을 동시에 포괄하는 표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疾病’은 이후 현대 중국어에서도 단일 질병보다 범위가 넓고 추상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단어로 정착되었다. 이는 개념의 범위와 정밀도 모두 확장하는 병렬적 전주의 사례로 볼 수 있다.

### (2) 愛慕 (àimù) : 감정을 뜻하는 의미의 병렬

‘愛’는 『說文解字』에서는 “愛, 行兒也. 從心, 旡聲.”, ‘慕’는 “慕, 愛也. 從心從莫.”라고 각각 풀이하였다. ‘愛’는 감정의 중심적 요소로서 사적이고 내적인 애정을 나타내며, ‘慕’는 존경과 동경의 성격을 함께

내포하는 감정어이다. 이 두 글자의 결합인 ‘愛慕’는 단순히 ‘좋아하다’는 의미를 초월하여 내면의 정서 + 외면적 존경 감정을 함께 포괄하는 복합적 감정 표현이 된다. 양자는 유의어지만 미묘한 정서적 결이 다르며 병렬 결합을 통해 표현의 정서 강도와 의미 깊이를 조절하는 감정 병렬화의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3) 讚美 (zànměi) : 찬양·칭찬 표현의 병렬 확장**

‘讚’은 격식을 갖춘 찬양이나 칭송의 의미이고 ‘美’는 아름다움을 칭찬하는 보다 일반적 감정 표현이다. 이 결합은 공적·사적 평가 감정의 병렬화를 통해 칭찬의 표현 강도와 적용 범위를 동시에 넓히며 강조적 표현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병렬 전주는 다음과 같은 기능적 효과를 갖는다.

기능	설명	예시
의미 강조	유사한 단어의 결합으로 개념의 강도를 높임	疾病, 愛慕
의미 범위의 확장	한 글자가 갖는 의미의 한계를 보완함	讚美, 敬佩
감정 및 상태 표현 강화	복합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병렬로 표현하여 표현력을 정밀화	欣喜, 惶恐
이음절어 형성 유도	단음절어의 한계를 극복하고 복합어로 발전	思想, 行動

이러한 효과는 모두 전주의 ‘의미가 통하는 자형 간의 관계를 적극 활용하는 조자 원리’라는 기본적 정의와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陸宗達·王寧1985:117 참조). 병렬 전주는 한자의 자형을 새롭게 만들지 않고 기존의 의미 관계 속에서 표현의 강조와 정교화를 실현하는 의미 기반 조합 방식이다. 이는 중국어가 단순한 단음절 단어 중심에서 복합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이음절어 구조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언어 기제로 작용하였으며 감정 표현의 다양화, 의미 층위화, 표현 구조의 안정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 3. 전주에 의한 의미 전이와 추상적 개념 확장

육종달(2015:52)에 따르면 전주의 가장 창조적인 기능 가운데 하나는 중심 자형이 새로운 의미 계열로 확장되며 기존과는 다른 개념군으로 의미가 전이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sup>4)</sup> 이러한 의미 전이형 전주는 단순히 유의어나 유사 개념 내에서의 미묘한 분화가 아니라, 한 어근 또는 자형이 추상화 과정을 거쳐 새로운 의미 체계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구석규(1988:233)는 이러한 전주는 한자 어휘의 의미망을 횡적으로 확장할 뿐 아니라, 종적으로 추상화하고 재조직하는 언어적 동력으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校 (xiào): 비교·검토 → 학교

『說文解字』에서는 “校, 木囚也. 從木, 交聲. (校는 나무에 가두다는 뜻이다.)”라고 풀이하였다. 이는 본래 고대의 형벌, 또는 규율의 장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사람들이 모여 규율과 질서를 배우는 곳이라는 의미로 확장되어 ‘學校’의 뜻으로 정착하였다. 나아가 서로 대조하여 틀림을 바로 잡는 행위로 의미가 확장되어 ‘校對’, ‘校勘’ 등의 단어가 생성되었다. 이처럼 ‘校’는 사무적 비교 행위에서 지식 교육의 공간 개념으로 전이되었으며, 이는 행위 개념에서 공간 개념으로의 의미 확장이라는 점에서 전주의 추상화 작용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2) 義 (yi): 제사 도구 → 정의·도덕적 원칙

‘義’는 『說文解字』에서 “義, 己之威也. 從我, 從羊.”이라고 하였다. 본래는 양(羊)을 제물로 바치며 자신(我)의 뜻을 드러내는 행위에서 유

---

4) 이러한 주장은 전주를 조자 방법 보다는 한자의 언어적 기능을 강조한 측면에 좀 더 무게를 둔 해석이라고 볼 수 있다.

래한 글자이다. 즉, 공동체 질서나 의례 속에서 개인의 역할을 드러내는 행위를 지칭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 이 글자는 공정함, 도의(道義), 정의(正義), 도덕(道德)의 원리를 상징하는 철학적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義理’, ‘忠義’, ‘義務’, ‘正義’ 등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의 희생 또는 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감이라는 구체적 사회 행동이 윤리적 추상 원칙으로 전이된 대표적 예다. 이는 초기 물질적 행위에서 도덕적 규범 체계로 전환된 사례이며 전주에 의한 의미의 추상화 및 철학화 가능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3) 印 (yin): 도장 → 흔적 · 권위의 표지

‘印’은 『說文解字』에서는 “印, 信也. 從爪, 從卩. (인, 믿음의 표시이다. 손과 무릎 꿇은 모양으로 구성된다)”로 설명되었으며, 원래는 손으로 누르거나 찍는 도장의 행위를 가리킨다. 이는 구체적인 물리적 누름 행위 및 도장(印章)을 뜻하였고, ‘날인(捺印)’, ‘인장(印章)’, ‘봉인(封印)’ 등에서 나타난다. 이후 이 글자는 흔적, 권위의 상징, 기억의 표식 등의 추상적 의미로 확장되어 ‘영향을 남기다(印象)’, ‘표식(標印)’, ‘문화적 낙인(烙印)’ 등의 단어에 쓰이게 되었다. 이는 물리적 흔적이 심리적 · 기호적 표상으로 전환된 사례로, 전주의 확장력이 인지 · 상징 체계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의미 전이형 전주는 ‘道’의 경우처럼 공간을 의미하던 물리적 개념이 추상적 개념으로 전이되어 철학, 법칙, 도리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義’의 경우처럼 행위의 개념이 윤리적 추상 원칙으로 전이되었으며, ‘印’의 경우처럼 구체적인 행위의 표현에서 추상적 의미로 확장 전이가 되는 등 중국어 어휘 체계의 고차원화(higher abstraction)에 기여하였다. 이는 전주가 의미망의 구조적 확장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개념 층위의 상향 이동(semantic elevation)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도 전이형 전주는 다양한 방식으로 계승되고 있다. 예를 들면, ‘網’은 본래는 어휘 도구였으나 오늘날에는 ‘인터넷(網絡)’의 개념으로 확장되어 사용되었고, ‘界’는 본래는 영역의 의미에서 현재는 지식 분야, 학문 분과(學界, 文化界)로 추상화된 의미로 전이 되었다.

이러한 현대적 파생은 모두 기존 자형이 새로운 개념군으로 의미 전이된 것으로, 고전적 전주 의식이 현대에도 어휘 확장의 중심 메커니즘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해 보면, 의미 전이형 전주는 기존의 의미군에서 벗어나 새로운 개념 영역으로 확장하는 전주의 고차원적 작용 방식이다. 이 방식은 단순한 유의어 결합을 넘어서 언어 내부의 의미 범주를 구조적으로 확장하고 철학적·사회적·기능적 개념 형성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의미 전이는 고대 문자의 표현 가능성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현대 중국어에서의 어휘 추상화, 복합어 형성, 개념 계층화 등 다양한 언어 현상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문자학적·언어학적으로도 높은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Ⅲ. 假借의 음차적 활용과 문자 체계의 안정성 유지

#### 1. 동음 가차에 의한 자형 재사용과 표현 확대

假借는 허신(許慎)이 육서(六書)의 여섯 번째 조자 원리로 정의한 방식으로, 가차란 본래 그 뜻을 나타내는 글자가 없어서 소리를 근거로 하여 뜻을 맡기는 것이다. 戴震(1980:64)에 따르면 “한자의 초기 문자 자원이 부족하던 시기에는 동음(同音) 또는 근음(近音)을 공유하는 글자를 차용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다<sup>5)</sup>”라고

---

5) 이러한 주장의 근본 원리는 한자의 언어적 표현력을 확장하고 문자 수를 억제하

하였고, 왕초경(2010:234)도 “가차는 문자 체계 내부에서 자형 재활용과 음차 기반의 기능 확장이라는 두 가지 언어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였다.”라고 주장하였다. 馬敘倫(1988:203)에 따르면 가차의 핵심 작용 중 하나는 자형의 음차적 재사용이며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①기존 자형의 발음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 ②새 자형을 만들지 않고 기존 글자에 다의성을 부여 ③원래 의미는 후대에 후기자(後起字)를 통해 구분. 이러한 과정은 고대 문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來’(lái): 곡식 → 오다

원래 의미: 보리(또는 곡식)을 상징하는 상형자이다. 『說文解字』에서 “來, 麥也. 從木, 象麥在木上生形.”이라고 풀이하였는데, ‘오다’, ‘도달하다’라는 동작 개념으로 가차되었다. ‘來’는 발음을 기준으로 동사 ‘오다’의 개념을 표현하는 데 차용되었고, 이후 ‘來到’, ‘未來’, ‘來年’ 등의 복합어로 확장되었으며 기존 자형이 전혀 새로운 의미 체계를 포괄하게 되었다. ‘보리’라는 원의(原義)는 후기자인 ‘麥’으로 분리되어 가차로 생긴 의미 중복을 조절하였다.

#### (2) ‘自’(zì): 코 → 스스로

『說文解字』에서 “自, 鼻也. 從目, 自聲. 假借為自我之自.”라고 풀이하였는데, 본래 ‘자’는 신체 부위인 ‘코’를 상형한 것이지만 이후 자기를 의미하는 지시 대명사로 가차되어 ‘스스로’, ‘자기’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自己’, ‘自立’, ‘自信’ 등 자기 관련 복합어의 중심 성분으로 기능한다. 이 또한 동음 자형을 차용하여 새로운 의미

---

려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를 표현함과 동시에 문자 수 증가 없이 의미 확장을 가능하게 한 전형적인 예이다.

### (3) ‘行’(xíng): 길 → 행동하다

『說文解字』에서 “行，道也。從彳從亍。”이라고 풀이하였다. 원래는 십자형 도로의 형태를 본뜬 자형을 의미하였으나 이후 가치를 통해 ‘걷다’, ‘실행하다’ 등 동사적 의미로 의미가 전이되어 ‘行動’, ‘行事’, ‘旅行’, ‘實行’ 등으로 확장되었다. 이것은 길이라는 공간 개념이 동사화되어 동작·의지 표현의 중심 자형으로 발전한 형태이며 기존 자형을 반복 사용하면서도 표현력을 극대화한 예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절 방식은 가차가 단지 임시 방편이 아니라 문자 체계 내부의 자원 관리 메커니즘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동음 가차에 의한 자형 재사용은 표현의 다양성과 자형의 절제성이라는 양면을 동시에 달성한 문자 체계 내의 언어적 최적화 전략이었다(裘錫圭 1988:253). 이를 통해 자형을 늘리지 않고 새로운 어휘·개념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능어, 추상어, 동작어 등의 표현 가능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아가 후기자 생성과 의미 정착 과정을 통해 체계적 조절 기능도 수행하였다. 이는 가차가 단순히 임시 차용 수단이 아니라 중국 문자 체계의 발전 과정에서 표현력 확대와 구조적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조자 원리였음을 시사한다.

## 2. 기능어 및 추상어 표현력의 확장

가차(假借)는 고대 중국어에서 음의 유사성에 기초하여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로 인해 원래 자형의 뜻을 초월한 기능어(function words)의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許慎이 『說文解字』에서 언급한 “依聲託事”라는 정의는 단지 자형의 일시적 차용이 아니라 새

로운 문법적 기능의 부여와 정착이라는 장기적인 언어 변화의 출발점이 었다. 특히 초기의 고문(古文)에서는 전치사, 대명사, 접속사 등 문법적 표지의 표현 자형이 부족했기에, 의미보다 음에 근거한 가차 방식이 광범위하게 활용되었다. 이는 기능어의 고착화 및 문장 구조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주요 기능어의 가차 기원과 언어적 기여에 대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1) 之 (zhī): 동작 → 지시 및 관계 대명사

『說文解字』에서 “之, 往也. 從辵, 止聲.”라고 풀이하였는데, ‘之’는 본래 ‘가다’라는 동작을 나타내는 자형이었으나, 이후 가차되어 소유 지시(吾之志, 其之子), 주술 연결(詩之興也), 목적 강조(欲之而不可得) 등과 같은 기능어로 사용되었다. ‘之’는 문법적 기능을 가진 접속사, 지시사, 소유사, 보조사로 정착되었으며, 이는 가차가 단어를 동작에서 문법 구조의 구성 요소로 전이시킨 대표 사례이다.

### (2) 其 (qí): 키 → 지시·소유 대명사

『說文解字』에서는 “箠也. 從竹; 其, 象形; 下其丌也. 凡箠之属皆从箠.”라고 풀이하였으며, 본래의 의미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키’이다. 가차 후에 그 의미가 ‘그’, ‘그의’, ‘그것의’ 등 지시·소유 대명사 기능으로 전이되었다. 예를 들면 『史記·仲尼弟子列傳』에서 “其父曰孔, 吾之友也 (그의 아버지는 공(孔)이라 하며, 나의 친구였다)”라고 하였고 『孟子·盡心下』에서도 “吾聞其言而信其行 (나는 그의 말을 듣고 그의 행동을 믿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실질 명사에서 지시 기능어로의 전이를 보여주는 예로, 한자의 문장 구조를 풍부하게 만든 가차의 언어적 응용 사례라 할 수 있다.

(3) 而 (ér): 턱수염 → 접속사

『說文解字』에서는 “頰毛也. 象毛之形. (턱수염이라는 뜻이다)”이라고 풀이하였으며 원의(原義)는 사람의 턱수염을 본뜬 상형자이다. 가차 후 의미가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등의 접속사로 사용되었다. 문장에서 접속기능의 ‘而’는 고대 문장 구성에서 접속기능의 핵심 축이 되었으며 가차를 통해 문법 연결자 역할을 부여받은 전형적인 기능어이다.

가차는 단지 문법 기능어에 국한되지 않고 감정, 관계, 상태, 사유 등의 비가시적 개념을 표상하는 추상어(abstract words)를 만들어내는 데에도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 예를 들면 ‘信’자는 원래 ‘믿다, 신임하다’에서 가차되어 ‘信任’, ‘信心’, ‘信仰’으로 확대 사용되었다. ‘明’자도 원래 ‘밝다’는 뜻에서 명확, 지혜 등으로 가차되어 ‘明白’, ‘明智’, ‘文明’이라는 어휘를 생성하였다. 이들은 모두 구체적·감각적 이미지에서 출발하여 철학적·논리적·윤리적 개념으로 전이된 사례로, 가차가 중국어의 추상화 체계 형성에 기여했음을 입증한다. 이러한 과정은 고대 중국어에서 음차 중심 가차 작용을 기반으로 한 표현력의 양적·질적 확대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가차는 한자의 음차적 활용을 통해 표현력이 결핍된 영역—기능어와 추상어—를 효과적으로 보완하였다. 이를 통해 문법 구조 구성 능력, 비가시적 개념 표현 가능성, 복합어 생성 기반 제공 등의 측면에서 한자의 언어 체계적 성숙과 확장에 기여하였다. 이는 중국어의 문법화 과정, 추상화 능력, 어휘 표현 범위 확대라는 다층적 성과로 이어졌다고 볼 수 있다.

3. 후기자 생성에 의한 의미 고정화

假借(가차)는 자형의 재사용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하나의 글자가 여러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게 되어 의미 혼동의 가능성을 초래하기

도 한다. 초기에는 문맥에 따라 뜻을 구분하였으나 한자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고 문서화가 본격화됨에 따라서 단일 자형에 여러 의미가 중첩되는 구조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裘錫圭 1988: 213-214 참조). 이러한 필요에 따라 등장한 것이 바로 後起字(후기자)이다. 후기자란, 기존 가차된 자형의 원래 의미를 복원하거나 새로운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창조된 보완적 글자를 의미한다. 후기자는 가차의 표현력 확장을 보완하면서 자형 간 의미 구분과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아래 사례를 살펴보자.

### (1) 益-溢

『설문해자』에서는 “益, 饒也. 從水皿. 水皿, 益之意也. (익은 풍족하다는 뜻이다. 물(水)과 그릇(皿)으로 구성된 글자이다. 물과 그릇은 ‘터하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본래 ‘益’이라는 글자는 물과 그릇에서 자형을 구성한 것으로, 조자(造字)의 의미 취사에서 볼 때 본래 뜻은 물이 그릇에서 넘쳐흐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설문해자』에서는 “饒, 飽也. 從食堯聲. (요는 ‘배부르다’는 뜻이다. 食(밥)의 의미 요소와 堯(요)의 소리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단옥재(段玉裁)는 “饒者, 甚飽之詞也, 引以爲凡甚之稱. (饒란 ‘매우 배부름’을 나타내는 말로, 모든 ‘풍족함’을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이라고 하였다. 또한 “餘, 饒也. 從食余聲. (餘도 풍족함이다. 밥(食)을 의미 요소로 ‘余’를 소리 요소로 구성한다.)”라고 풀이하였다. 이로 보아 『설문해자』에서는 ‘益’을 ‘풍족하다’(饒也)로 해석하였는데, 이는 본래 의미가 아니라 파생된 의미이다. 이후 ‘益’은 파생 의미로 많이 사용되면서 본래 의미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본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한 새로운 글자를 창조할 필요가 생겼다. 『설문해자』에서는 “溢, 器滿也. 從水益聲. (溢(일)은 그릇이 가득 차다는 뜻이다. 물(水)을 의미 요소로 하고 ‘益’을 소리 요소로 구성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溢’의 본래 의미는 ‘그릇이 가득 찼다’, 즉 물이 그릇에서 넘쳐흐른다는 뜻이다. 이로써 ‘溢’은 ‘益’의 본래 의미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해 새로 만들어진 글자임을 알 수 있다. ‘益’은 ‘溢’의 초기 자형이며, ‘溢’은 ‘益’에 의미 부호 ‘물(水)’을 덧붙여 만든 후기(後起)의 형성자(形聲字)인 것이다. 이는 가차에 의해 의미가 변형된 자형에 대해 새로운 글자를 통해 의미의 복원을 시도한 전형적인 후기자 생성 사례이다.

## (2) 然-燃

『설문해자』에서는 “然, 燒也. 從火肫聲. (然(연)은 태우다는 뜻이다. 불(火)이 의미요소, 肫(연)이 소리 요소로 구성된다.)”라고 풀이하였다. 『옥편(玉篇)』에서는 “燃, 俗爲燒然字. (일반에서 불태우다는 뜻의 然자를 대신해서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然’의 본래 의미는 ‘태우다’라는 뜻인데, 후에 허사 ‘然’으로 가차되면서 그 본래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의미 부호인 ‘불(火)’을 덧붙여 본래 의미를 나타내는 ‘燃’자를 새로 만들어낸 것이다. 즉, ‘然’은 ‘燃’의 초기 자형(初文)이며 ‘燃’은 ‘然’의 후에 만들어진 형성자(後起形聲字)인 것이다.

## (3) 莫-暮

『설문해자』에서는 “莫, 日且冥也. 從日在艸中, 艸亦聲. (莫(막)은 해가 지려는 때를 의미한다. 日(해)이 땅자의 아래에 있는 것을 본뜬 것이며, 땅이 또한 소리요소로 구성된다.)”라고 풀이하였다. 『옥편(玉篇)』에서는 “暮, 日入也. (暮(모)는 해가 지는 것이다)”라고 풀이하였다. ‘莫’의 본래 의미는 “해가 막 지려 하여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시간, 즉 저녁 무렵이나 황혼”을 뜻한다. 그러나 나중에 ‘莫’이 ‘금지하다’ 혹은 ‘없다’는 뜻으로 가차되어 사용됨에 따라 본래 의미가 불분명하게 되었다. 따

라서 의미 부호인 ‘해(日)’를 덧붙여 본래 의미를 나타내는 ‘暮’자를 새로 만들어낸 것이다. 즉, ‘莫’은 ‘暮’의 초기 자형(初文)이며 ‘暮’는 ‘莫’의 후에 만들어진 형성자(後起形聲字)인 것이다.

이와 같은 후기자의 생성은 단지 의미의 복원에 머물지 않고 한자 체계의 의미 정착, 자형 간 일대일 대응 회복, 언어 체계의 정합성 유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가차에 의해 초래된 다의성과 혼란을 정리하고 표현력 확장과 체계 정돈이라는 이중 구조를 조율하는 한자의 내재적 자가조절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 또한 후기자는 의미망(semantic network)의 분기 및 재구성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然’ → ‘燃’, ‘莫’ → ‘暮’, ‘益’ → ‘溢’과 같은 구조는 동일 어근군 내부의 분화를 통해 의미군을 체계화하며 후속 어휘군 형성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처럼 가차는 문자의 수량을 통제하는 동시에 후기자를 통해 문자 구조의 안정성과 의미 네트워크의 정밀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전략적 장치로 기능한다.

#### IV. 轉注와 假借의 상보적 기능과 통합적 기여

##### 1. 의미 확장과 음차 표현의 상호 보완 구조

한자의 육서(六書) 가운데 전주(轉注)와 가차(假借)는 각각 의미의 확장과 음의 차용을 중심으로 하는 상이한 작용 원리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원리는 문자 체계 내에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으로 작용하면서 언어 표현과 문자 운영의 균형을 이룬다는 점에서 중요한 통합적 의미를 갖는다(孫建偉 2013: 41-42 참조).

구분	전주(轉注)	가차(假借)
중심 원리	의미 확장 (semantic derivation)	음의 차용 (phonetic borrowing)
자형 사용	기존 자형 의미망 확장	기존 자형의 음 재사용
주요 기능	의미 다양화, 유의어 분화, 정교한 표현	추상 개념 표현, 기능어 생성, 자형 절제
자형 변화	없음 (형 유지)	없음 (형 유지, 후기자 생성 가능)
대표 예시	思 → 想, 愛 → 慕	自(코) → 스스로, 來(보리) → 오다

이처럼 전주는 의미의 심화와 확산, 가차는 표현의 확대와 체계의 절제라는 상반된 방향의 원리로 작용하지만 그 결과는 상호를 보완하여 언어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끈다.

먼저 전주와 가차는 자형 재사용과 의미망 구축의 결합을 통해 상호 보완의 구조는 이룬다. 즉, 전주는 중심 자형을 기반으로 의미를 계열적으로 확장하여 어휘의 정밀화를 이루고, 가차는 같은 음의 자형을 통해 의미 표현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어휘의 외연을 확대한다. 예를 들어 ‘思’는 ‘생각하다’라는 의미에서 전주에 의해 ‘想(상상하다)’, ‘憶(기억하다)’, ‘念(되새기다)’ 등으로 분화되고, 이와 동시에 ‘自’는 ‘스스로’라는 개념을 음차로 빌려 표현함으로써 ‘自己’, ‘自信’, ‘自由’ 등 주체적 사고와 관련된 복합어 구성에 기여한다. 이 과정은 한 어근군 내부의 개념 조직(전주)과 문법 구조의 기능화(가차)가 결합하여 복합적 어휘 표현 체계를 형성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전주와 가차의 병렬 구조와 문법화 기능의 결합이다. 전주에 의해 유의어가 병렬적으로 구성되어 의미의 강조 및 정서 표현의 풍부화를 이룬다(예: 敬佩, 愛慕). 이에 더하여 가차는 이러한 병렬 구조 안에서 문법 기능어(之, 而, 其 등)를 도입함으로써 문장의 구조화와 복잡화를 가능하게 한다. 결국 병렬화된 어휘 구조와 기능어 표현은 표현 내용과 형식이 모두 정교화되는 상호 보완 구조를 이룬다. 고대 문헌에서는 전주와 가차의 결합적 작용을 통

해 의미와 문장 구조가 동시에 발전한 사례들이 다수 확인된다. 『論語·學而』의 「學而時習之, 不亦說乎?」라는 구절에서 ‘習’은 ‘반복하다’는 전주적 확장 자형(원래는 ‘하늘을 날다’)으로, ‘之’는 ‘習’을 지시하는 가차적 기능어로 사용되었다(韓寧 2008: 94-95 참조). 여기에서 ‘之’는 문장의 주술구를 매끄럽게 연결하고 ‘習’은 학습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제하여 표현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맹자·양혜왕상』에서 “王曰: 何以利吾國?(왕이 말하기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에 이익이 되겠는가?)”라는 구절 속의 ‘以’는 원래 ‘쓰다, ~을 이용하다’라는 동사였으나, 여기서는 ‘~으로, ~를 통해’라는 전치사 기능으로 사용되었다. 즉, 가차에 의한 기능어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何以利’는 “무엇을 통해 이롭게 하겠는가?”라는 구조로 해석됨이 옳다. 또한 문장 속의 ‘利’는 본래 ‘칼로 베다’라는 물리적 의미(형의상으로도 刀와 禾 구성)였으나 여기서는 ‘이롭다’라는 추상적 가치 판단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전주에 의한 의미 전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구절은 문장 구조 속에서 가차(以)와 전주(利)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으며 의미적으로는 수단의 표현과 가치의 개념화, 구조적으로는 질문 형식 문장의 구성 요소로 기능한다. 전주와 가차가 동시에 작용하여 표현의 구체성과 문법적 정합성을 동시에 확보한 예이다. 또한 전주와 가차는 그 기능과 작용 방향은 다르지만 표현력의 심화와 문자 체계의 안정이라는 보완적 목표를 동시에 실현한다.

항목	전주	가차	결합 효과
기능	의미의 확장, 개념 정교화	음차에 의한 표현 확대, 자형 절제	표현력의 양·질적 증대
표현 범위	유의어 계열 중심의 의미망 구축	추상 개념과 기능어 영역의 확장	언어 표현의 다층화 및 고도화
문자 구조에 미친 영향	자형 유지, 의미 다변화	자형 재사용, 후기자 생성으로 정돈	체계의 효율성과 정합성 동시 확보

이는 중국어가 단순히 단어 수를 늘려가는 방식이 아니라 표현력을 확대하면서도 문자 체계의 내부 질서를 정돈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을 보여주는 구조적 근거이다. 전주와 가차는 각각 의미 확장과 음차 표현이라는 상이한 조자 원리를 바탕으로 작용하지만 이 두 방식은 어휘의 심화·확장과 문자 체계의 경제성과 안정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상호 보완적 구조를 형성해왔다. 따라서 전주와 가차는 단지 조자 원리의 한 유형을 넘어서 중국어 어휘 체계 전체의 유기적 성장과 조화에 핵심적인 언어 발전 원리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이음절어 구성에 대한 양자의 기여 비교

고대 중국어는 기본적으로 단음절어 중심의 고립어(孤立語)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한나라 이후부터 이음절어(二音節語)의 사용이 점차 증가하였고 현대 중국어에 이르러서는 이음절어가 어휘 구성의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黃伯榮·廖序東 2011: 376-380 참조). 이음절어의 등장은 ①동음이의어 구분 ②의미의 정밀화 ③구조적 안정성 확보 ④어휘 자원의 확장 등과 같은 언어적 필요성에 의해 촉진되었다. 전주와 가차는 이러한 이음절어 형성 과정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관여하면서도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였다. 전주(轉注)는 동일 어근 또는 의미 계열 내의 자형을 병렬·분화·확장하여 이음절어를 형성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 2-1. 병렬적 유의어 결합

의미가 유사하거나 상보적인 두 글자를 결합하여 정서나 의미를 강조하거나 미묘한 의미 차이를 구분함

예시	구성 자	설명
愛慕	愛 + 慕	애정+ 동경 → 감정 강조
敬佩	敬 + 佩	존경 + 감탄 → 존경의 정도 심화
思想	思 + 想	사고 + 상상 → 사유 체계 일반화

전주는 이처럼 어휘 의미망(semantic field)을 계열화하고 의미 층위를 명확히 하며 이음절어의 의미 밀도와 표현 정교화에 기여한다.

### 2-2. 중심어근의 의미 분화

하나의 어근(語根)에서 파생된 자형들이 서로 다른 뉘앙스를 부여하며 이음절어로 확장됨

중심 어근	파생	이음절어 예시
行	動, 爲, 事	行動, 行爲, 行事
愛	慕, 戀, 戴	愛慕, 戀愛, 愛戴
思	念, 想, 憶	思念, 思想, 回憶

이 방식은 한 어근을 기반으로 한 어휘군 형성(lexical family)을 가능케 하여 언어 체계의 체계성과 경제성을 확보하게 된다. 아울러 가차(假借)는 자형 수의 절제와 기능어 형성에 주로 기여하지만 이음절어 형성에서도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郭紹虞1938: 1-34 참조).

### 2-3. 기능어의 결합을 통한 문장 단위화

가차된 기능어(之, 而, 其 등)는 명사나 동사와 결합하여 문장 단위 혹은 관용적 이음절어 구조를 형성한다.

예시	역할	설명
之志	지시사 + 명사	吾之志 등에서 ‘~의’ 기능 수행
而言	접속사 + 동사	‘그러나 말하자면’ → 전환 구문의 단위화
其後	대명사 + 명사	‘그 후에’ → 시간 표현 단위 구성

이는 가차에 의해 형성된 기능어가 이음절 단위의 문법적 구조를 강화하는 예이다.

#### 2-4. 추상 개념 표현의 복합화

가차로 만들어진 추상어들이 다른 자형과 결합하여 개념 복합어로서의 이음절어를 구성한다.

자형	본의	가차 의미	이음절어
自	코	스스로	自己, 自信
來	보리	오다	來到, 未來
道	길	진리	道德, 道理

가차 자형은 복합 추상 개념의 표현을 위한 핵심 구성요소로 작용하며 이음절어의 의미 범위 확대에 기여한다.

#### 2-5. 전주와 가차의 이음절어 형성 비교

항목	전주(轉注)	가차(假借)
중심 메커니즘	의미의 분화와 병렬화	발음의 차용과 기능어화
작용 범위	동의어·상보어 중심의 의미망 형성	기능어·추상어 중심의 개념 결합
이음절어 형성 방식	의미군 내 자형의 병렬적 결합	가차된 자형의 결합 및 문법 단위화
대표 예시	愛慕, 思想, 行動	自信, 道德, 其後
언어적 기능	어휘 정밀화, 뉘앙스 강조	개념 정착, 문법 구조의 구축

전주는 어휘 의미의 수직적 정교화를, 가차는 표현 단위의 수평적 확장과 기능어 중심 구조화를 담당한다. 이 둘은 이음절어 중심 구조에서 유기적 협력 관계를 형성한다(蘇培成 2001: 10-11 참조). 전주는 의미 계열 내 의미 분화와 병렬화를 통해 정서 표현의 강화, 의미의 계층화, 어휘망 구성에 기여하고, 가차는 기능어화와 추상 개념어의 정착을 통해 복합 구조화, 문장 내 조합 가능성 증대, 구조적 응집력을 제공하였다. 이러한 상호 작용은 중국어가 단순 단음절적 표현에서 의미·문법·형식이 통합된 이음절 구조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전주와 가차가 얼마나 긴밀하게 보완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보여준다.

### 3. 문자 체계와 어휘 구조의 균형적 발전

전주와 가차는 육서(六書)의 마지막 두 항목으로서 조자 방식상 가장 해석이 난해한 동시에 가장 창조적이고 유연한 방식이다. 이 두 조자 원리는 각각 상반된 방향성을 지니고 있지만 언어의 구조와 기능을 입체적으로 확장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전주와 가차는 중국어의 어휘 시스템을 다음과 같이 심화·확장시켰다.

영역	전주의 기여	가차의 기여
어휘의 정밀화	의미 분화 및 병렬화를 통해 뉘앙스 조절	기능어 및 추상어를 도입하여 의미 체계 확장
어휘군 형성	어근 중심의 의미 계열 형성	동일 음 기반의 복합어 생성
이음절어 확대	유의어 병렬형, 중심어 분화형 이음절어 형성	추상 개념 + 기능어의 결합어 구성

예를 들어 ‘思’는 전주를 통해 思想, 思念, 思考 등의 어휘군으로 확장되며 ‘自’는 가차를 통해 自信, 自由, 自我 등의 기능어-의미어 복합어를 생성하게 된다. 가차는 단어의 기능 전환을 가능하게 하여 고대 중국어의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과정을 이끌었으며, 전주는 단어

간의 의미망을 조직함으로써 구문 구조(syntactic structure)의 기초를 제공하였다. 두 방식은 중국어 문장의 논리성, 응집성, 계층성 확립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였으며 고대 한어에서 현대 중국어로의 문법 구조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중국 한자는 그 복잡성과 지속성에도 불구하고 3천 년 이상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전주와 가차의 상호작용이 문자 체계의 구조적 유연성과 정합성 유지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이 두 방식은 결과적으로 문자 수의 절제, 의미의 명확화, 문자-음-의의 대응 구조 정비에 기여하였다. 전주와 가차는 단지 한자의 조자 원리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중국어 어휘학, 문법학, 문자학 전반에 영향을 끼친 핵심 언어 발전 원리이다. 이는 전주와 가차가 문자의 생성·운영 원리를 넘어서 중국어라는 언어 체계 전체의 역사적 성립과 지속 가능성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요소로 평가할 수 있다.

## V. 결론

본 논문은 漢字 조자 방식 가운데 가장 해석이 어렵고 역사적 기능이 복합적인 轉注(전주)와 假借(가차)의 구조와 작용을 비교·분석하고 이들이 중국어 어휘 체계와 문자 시스템의 발전에 어떻게 통합적으로 기여해 왔는지를 언어사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전주는 의미 중심의 확장 원리로서 하나의 중심 자형이 동계(同系) 의미군으로 분화·파생되며, 병렬적 조합과 개념 전이를 통해 어휘망을 정교하게 구성한다. 이에 따라 감정, 사유, 행위 등의 표현이 더욱 풍부하고 정밀해지며 유의어 계열화와 어근 중심 의미 조직이 가능해졌다. 반면 가차는 음 중심의 차용 원리로서 기존 자형을 재사용하여 자형의 증가를 억제하고 새로운 개념이나 기능어의 표기를 실현하였다. 특히 본래 자형이 갖고 있던 의미와 무관하게 음의 유사성만을 기반으로 추상적 개념어(自由, 自信 등) 및 문법 기능어(之, 其, 而, 以 등)를 생성하여 고대 중국어의 문장

구조 형성과 문법화 과정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두 방식은 기능적 방향성은 다르지만 어휘의 외연과 내포를 각각 담당하며 상호보완적 구조를 형성하였다. 전주는 어휘의 의미망과 계층적 정밀화를 가능하게 했고 가차는 문법 단위 형성과 표현 범위의 수평적 확대를 실현하였다. 이러한 상보적 관계는 특히 이음절어 형성과 문장 단위 구성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며 단음절 중심의 고대어에서 복합 구조의 현대 중국어로 이행하는 어휘사적 전환의 핵심 기반이 되었다. 또한 가차의 다의성은 후기자(後起字)의 생성과 더불어 보완되었고 이는 문자 체계 내부의 자가 조정 기능으로 작동하면서 의미 충돌을 해소하고 자형-음-의의 일대일 대응 관계를 회복시켰다. 이로써 문자 수의 절제와 의미의 명료화라는 상반되는 언어적 요구가 균형 있게 실현되었다. 전주와 가차는 단지 문자 조형의 기법에 머물지 않고 어휘 생성·문법 구조화·문자 체계 정합성 유지 등 중국어의 핵심 언어 체계 전반에 걸쳐 관통하는 이론적 원리로 작용하였다. 고대 한자의 어휘 분화, 기능어 정착, 문장 구조의 논리화는 물론, 현대 중국어의 의미 계열 구성, 복합어 형성, 문법적 안정성 유지 등도 이 두 조자 원리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나아가 정보화 시대에 이르러서는 의미 기반 어휘망 설계, 자형 관리, 자연어처리(NLP)와 같은 기술적 영역에서도 전주와 가차의 체계적 분석과 응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轉注과 假借는 고대 한자 창제 원리로서의 가치를 넘어서 중국어라는 언어가 수천 년 동안 체계적 정합성과 표현력의 유연성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이중 구조적 동력이자 어휘사·문자학·문법사 전반의 역사적 발전을 이끈 핵심 이론 체계라 할 수 있다. 이 두 원리에 대한 심화 연구는 단순히 문자학적 복원에 그치지 않고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의 언어사 재구성, 현대 중국어 교육, 디지털 인문학과 같은 학제 간 연구에도 폭넓은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 곽현숙(2021), 「轉注의 재고찰」, 『중국학』 제75집, 중국학회, 135-150.
- 연규동(2015), 「문자의 발달 원리와 한자의 육서」, 『언어학』 제71호, 한국언어학회, 161-184.
- 하영삼(2014), 『한자어원사전』, 도서출판3.
- 李淑萍(2007), 「論轉注字之成因及其形成先後」, 『成大中文學報』, 第18期, 197-216.
- 汪維輝·胡波(2013), 「漢語史研究中的語料使用問題」, 『中國語文』, 2013年 第4期, 359 -370.
- 郭紹虞(1938), 「中國語詞之彈性作用」, 『燕京學報』, 24卷, 1-34.
- 韓寧(2008), 「再議轉注與假借的造字意義」, 『太原大學學報』, 36卷, 94-95.
- 孫建偉(2013), 「文字發展定律及其對分化字的影響」, 『重慶社會科學』, 31卷, 41-42.
- 陸錫興(1986), 「假借轉注再研究」, 『語言研究』, 第4期, 86-88.
- 許慎(1963), 『說文解字』, 中華書局.
- 段玉裁(1983), 『說文解字注』, 中華書局.
- 楊伯峻(1980), 『論語』, 中華書局.
- 班固(1975), 『漢書』, 中華書局.
- 劉勰(1984), 『文心雕龍』, 中華書局.
- 劉向(2004), 『說苑』, 中華書局.
- 王力(1999), 『古代漢語』, 中華書局.
- 陸宗達(2015), 『說文解字通論』, 中華書局.
- 裘錫圭(1988), 『文字學概要』, 商務印書館.
- 孫中運(1990), 『論六書之轉注』, 學林出版社.
- 馬敘倫(1988), 『說文假借之字』, 中國書店.
- 陳夢家(2006), 『中國文字學』, 中華書局.
- 陳漢章(2004), 『漢字演變論』, 中華書局.
- 陳章太(2005), 『中國語言文字概論』, 中華書局.

- 黃伯榮·廖序東(2011), 『現代漢語』, 高等教育出版社.  
章太炎(1988), 『國故論衡·轉注假借說』, 商務印書館.  
陸宗達·王寧(1985), 『說文解字與本字本義的探求』, 上海辭書出版社.  
董秀芳(2011), 『詞彙化: 漢語雙音詞的衍生和發展』, 商務印書館.  
『廣韻』(1987), 宋代 刊行, 上海古籍出版社 影印本.  
『集韻』(2006), 宋代 編纂, 中華書局 影印本.

❖ ABSTRACT

A Study on Complementary Functions of  
Zhuǎnzhù and Jiǎjiè: Focusing on the Interaction  
between Expressive Power and Stability in the  
Chinese Writing System

Seo, WeonNam  
HanYang University

This study investigates Zhuanzhu (轉注) and Jiajie (假借), two of the Six Principles (六書) of Chinese character formation, focusing on how their respective mechanisms had complementari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hinese vocabulary and the structural coherence of the Chinese writing system. Zhuanzhu, based on semantic expansion and analogy, enables diversification and refinement of meanings within a word family, often through creation of synonymous or related compound words. In contrast, Jiajie, based on phonetic borrowing, facilitates the expression of new grammatical and abstract concepts by reusing existing characters with similar sounds, thereby preventing an unmanageable in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character forms.

Through close textual analysis, this study demonstrated how these two principles operated in tandem during the formation of disyllabic words and grammatical structures in Classical Chinese. Examples from early canonical texts and later vocabulary developments showed a diachronic continuity of these mechanisms. Furthermore, the emergence of post hoc characters (後起字) to resolve semantic ambiguity caused by Jiajie illustrated a self-regulating mechanism inherent in the writing system.

In conclusion, Zhuanzhu and Jiajie not merely ancient tools for character formation. Instead, they were core linguistic principles that shaped the expressive power, grammatical structure, and systemic stability of the Chinese language. Their theoretical value remains relevant in contemporary areas such as Chinese lexicography, language pedagogy, and digital language processing.

Keywords: Zhuanzhu, Jiajie, Six Principles, disyllabic words, Chinese character structure, historical linguistics, writing system stability

■ 논문투고일 : 2025. 05. 10

■ 심사완료일 : 2025. 05. 29

■ 게재확정일 : 2025. 06. 09